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2. 3. 20.

발 의 자 : 정하영, 김성현, 김상조,
김수민, 김익수, 김정곤, 김정미,
김재상, 김춘남, 김태근, 박교상,
박세진, 박주연, 손홍섭, 윤영철,
이명희, 이수태, 임춘구, 정하영,
허복, 황경환

1. 주 문

- 한국철도공사는 1999년 12월 착공 후 14년 동안 미준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시민불편 장기화 및 구미시 관문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
- 이에 한국철도공사에서는 구미 복합역사의 교통영향 평가 결과 역후광장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지난 2011년 8월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대신하여 사업개발본부장이 구미시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구미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 정상화를 대외에 공표한 바 있으나,
- 현재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과 구미시민을 우롱 한 처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조기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함.

2. 제 안 이 유

- 구미시 관문인 구미 복합역사의 조기완공 및 정상화를 위해 지난 2011년 9월 구미시민에게 발표한 조기정상화 이행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여 한국철도공사의 공공기관으로서 구미시민과 이용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42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함.

3. 참 고 사 항

- 결의안

구미 복합역사 조기 정상화 촉구

결 의 안

한국철도공사는 1999년 12월 구미복합역사 공사를 착공한 후 14년 동안 미 준공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시민불편 장기화 및 구미시 관문으로서의 대외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구미 복합역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역후광장 지하 주차장 건립에 대한 책임이 한국철도공사에 있음을 인지하고,

2011년 8월 사업개발본부장이 구미시를 방문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 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표하였으며,

같은 해 9월 한국철도공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도 당시 철도공사 사장이 책임을 지고 구미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 구미 복합역사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것은 공익을 최우선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며 구미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에, 우리 구미시의회는 42만 시민과 함께 구미복합역사와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조기완공 및 정상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구미 복합역사를 조기에 정상화 시키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는 더 이상 구미시민과 구미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구미 복합역사 및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라**.

하나,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는 구미시민과 구미역사 이용객의 불편을 없애고 입점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구미 복합역사가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42만 시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2년 3월 21일

구미시의회 의원 일동